

접미사 ‘-돌이’, ‘-순이’ 系列의 卑俗語에 대하여

김 영 희*

I. 머리말	V. 성별과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
II.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개념 과 특성	VI.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
III. ‘-돌이’, ‘-순이’의 접미사화	VII. 맺음말
IV.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의미	

I. 머리말

언어는 그 사용자의 문화수준, 교양, 품위 등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될수록 우아하고 고상하며, 점잖고 규범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言衆은 천차만별,形形色색의 인간들로서 언어의 사용실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며 어감이 점잖지 못한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어휘를 일반어와 특수어(位相語)로 나누면 학생과 군대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속어는 특수어에 속한다.¹⁾ 비속어는 친숙한 사이에서 쓰이므로 자연스럽게 비속한 어감을 띠게 된다. 그러나 비속어는 대중 속에 살아 있는 생생한 구

* 중국 洛陽외국어대학, 한국어

1) 이 문제에 관해서는 姜信沆, 『현대 국어어휘사용의 양상』(태학사, 1991), 10쪽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어로서 우리는 비속어를 통하여 문어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어의 다른 한 측면을 알 수 있으며 한국 문학작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그 사용자들의 희로애락을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상과 문화 풍속도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에게 ‘한국문학작품감상’ 과목을 강의하면서 비속어의 의미과약이 한국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속어가 조어, 의미, 기능, 어음 등 여러 면에서 일상어와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²⁾를 바탕으로 하여 ‘-돌이’, ‘-순이’가 접미사처럼 쓰여 형성된 비속어의 개념과 특성, 造語, 의미 및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와 성별과의 관계,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II.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개념과 특성

“속어는 장난기 어린 표현이나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 등을 구사하여, 회화에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말놀이(언어의 유희)”³⁾이다. “비속어라고 할 때는 낮은 말, 낮춤말, 속된 말을 모두 포괄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감이 좋지 않거나 점잖지 못한 낱말이나 표현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다.”⁴⁾ “일반적으로 속어의 발생동기는 단순치 않다. 대개는 정상적인 어구가 너무 진부하게 느껴져서 정상적인 어구로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유머러스하게 말을 한다거나 단정함에 반항하고자 하는 심리, 또는 신기한 것으로서 타인을 놀라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寫實的인 표현을 해서 구체성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또는 대화를 쉽고 정답게 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속어는 생생한 표현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아주 친밀한 대화에

2) 자료는 주로 위의 책, 金東彦, 『국어비속어사전』(프리미엄북스, 1999); 김택구, 「대학생 사회의 은어(隱語) 고찰」, 『인문과학연구』, 5집 2호(1998)에서 취하였다.

3) 姜信沆, 앞의 책, 126쪽.

4) 金東彦, 앞의 책, 10쪽.

서 생성, 발달하는 것이므로 비속한 어감을 당연히 띠게 되며, 엄숙한 구어나 문어에는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는다.”⁵⁾

위의 정의들을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1) (가) 비속어의 범위는 비어(낮은말, 낮춤말)와 속어(통속적으로 쓰이는 말)를 포함한 것이다.
- (나) 그 특성은 표현이 참신하고 어감이 비속한 데가 있다.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란 남자 담임 선생님, 여자 담임 선생님이라는 일상이 있음에도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擔돌이’, ‘擔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는 표현이 참신하고 어감이 비속한 비속어의 공통된 특성 외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 (가) 인명용 접미사 ‘-돌이’, ‘-순이’가 임시 접미사처럼 쓰여 형성된 접미 파생명사다. ‘-돌이’, ‘-순이’는 성별의 구별표식이 되며 그 생산성이 다른 專用접미사⁶⁾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다.
- (나) 출신, 직업, 성분, 성질, 행위, 외모 등이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명명하는 지시의미(referential meaning) 외에 정감적 의미(emotive meaning)도 나타내는데, 그것은 장면에 따라 가변성을 띤다.
- (다) 직업과 관련된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에서 성별 비대칭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일 성별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관계된다. 성질, 행위, 외모를 나타내는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은 婦德을 유별나게 강요당하던 한국 여성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은 신기한 표현에 대한 추구, 동질성(친밀성) 확보, 감정표현의 욕구, 경제성 등 네 가지에 있다.

5) 姜信沆, 「軍隊卑俗語에 대하여」, 『一石 李熙昇先生 頌壽紀念論叢』(1957).

6) 사전에 접미사로 올라 있으며, 접미사의 단일한 기능만 가지는 접미사, 예를 들면, ‘쟁이, 씨,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Ⅲ. ‘-돌이’, ‘-순이’의 접미사화

‘-돌이’, ‘-순이’는 코쟁이(서양사람), 바지씨(남자 애인), 군발이(군인), 앵벌이(길에서 동정을 구걸하는 걸인)에서의 ‘-쟁이, -씨, -발이, -이’ 등 전용접미사와는 구별된다. ‘돌’은 “흙 따위가 굳어서 된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것”⁷⁾이라는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어 명사인데 한국인의 남자 이름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 즉 무정물(inanimate)을 지시하는 대상 영역에서 유정물(animate entities)로서의 사람을 지시하는 대상 영역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폐음절 고유명사에 첨가되는 조음적인 접미형태소로서 의미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순이’의 ‘順’은 한자어 ‘順하다’의 어근으로서 ‘하다’와 같이 쓰여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다’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낸다. ‘順’은 한국인의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흘러간 노래 중에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이세돌(바둑선수), 인순이(가수)라는 이름이 있듯이 가장 흔한 인명용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1950년대 후반기부터 학생, 군인들 속에서 발생한 비속어⁸⁾에서 兼用접미사⁹⁾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 즉 중국어의 단음절 친족어 爺(부친, 조부), 哥(형, 오빠), 弟(남동생), 嫂(형수, 올케), 姐(누나, 언니), 妹(여동생) 등은 접미사처럼 쓰여 ‘출신, 성분, 계층, 성질 등이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新語를 형성한다.¹⁰⁾

예컨대 택시(taxi)를 중국어로 音譯한 的士에서 첫 음절을 따서 거기에 爺, 哥,

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1611쪽.

8) 필자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신항 선생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필자의 질문에 친절히 응답해 주었는데 ‘-돌이’, ‘-순이’가 1950년대 후반기부터 학생, 군인들 속에서 쓰였다는 사실은 강신항 선생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강신항 선생께 깊은 謝意를 드리는 바이다.

9) 주5)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돌이’와 ‘-순이’처럼 인명용자로도 쓰이고 비속어에서 접미사 기능도 하는 것을 가리킨다.

10)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20여 년 동안 많은 새로운 사물이 생겨남과 동시에 그것들을 반영한 新語도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款爺(돈 많은 남자), 款哥(돈 많은 남자), 款婆(돈 많은 여자), 款姐(돈 많은 여자)와 같은 것인데, 이것들은 통속적인 어감을 띠면서도 새로운 사물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신어에 속한다.

姐, 妹를 결합하여 的爺(택시 운전기사), 的哥(택시 운전기사), 的姐(여자 택시운전기사), 的妹(여자 택시 운전기사)라는 신어가 형성되었다. 중국 학자 沈孟璵은 접미사처럼 쓰인 이와 비슷한 형태소들을 유사접미사(類詞綴) 혹은 준접미사(準詞綴)라고 하였다.¹¹⁾ 지시대상이 남성일 때는 爺, 哥, 弟가, 지시대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嫂, 姐, 妹 등이 쓰인다. 즉 성별 구별의 기능도 하는 것이다. 嫂는 ‘이미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직업을 나타내는 형태들과 결합하여 ‘x에 종사하는 사람의 아내’ 혹은 ‘x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爺는 문맥에 따라서는 간혹 通性指稱語 기능도 한다. 즉 지시대상이 남성일수도 있고 여성일수도 있다.

(3) (가) “最初, 從事倒買倒賣, 投機倒把的人, 多爲男性, 故稱‘倒爺’”(시초에 투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많았으므로 ‘倒爺’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¹²⁾

(나) “這時, 一位來自綏芬河的女‘倒爺’劉姐招呼我‘孫記者, 快來幫我看一會兒, 剛才我又丟了兩雙鞋!’”(이때 수분하에서 온 여자 투기꾼 유씨가 나를 불렀다. “손기자, 가계를 잠깐만 봐주세요. 방금 신 두 켤레나 또 도둑 맞았어요.”)¹³⁾

(3가)의 倒爺는 남성 투기꾼을 지칭한 것이고 (3나)의 倒爺는 여성 투기꾼을 가리킨 것이다. 물론 (3나)의 倒爺는 앞에 있는 관형어 女의 수식을 받아 여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돌이’, ‘-순이’는 성별의 구별적 표식이 된다. 즉 유표적(marked)이다. ‘-돌이’는 남성에게, ‘-순이’는 여성에게 쓰인다. ‘-돌이’, ‘-순이’는 원래의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고 ‘사람, 남자’, ‘사람, 여자’라는 추상화된 의미만 남아 출신, 성분, 특징 등이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속적으로, 또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낮추어 지칭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돌이’, ‘-순이’는 조어능력이 다른 전용 접미사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기 때문에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속어는 수적으로 많고 (본고

11) 沈孟璵, 「再談漢語新的詞綴化傾向」, 『詞彙學新研究—首屆全國現代漢語詞彙學討論會選集』(語文出版社, 1995), 195쪽.

12) 于根元, 『現代漢語新詞辭典』(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4), 142쪽.

13) <http://www.Chinanews.com.cn>.

에서 다루는 것만 해도 63개나 된다), 넓은 의미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앞에 붙는 형태소를 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여러 가지가 골고루 있다. ‘순이’와 비슷한 것으로 ‘-淑이’가 있다. 예를 들면, 간숙이는 간순이와 같이 간간한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의미와 형태, 기능의 면에서 유사점이 많지만 조어능력은 ‘순이’에 미치지 못하여 기숙이, 미숙이, 열숙이 등 몇 개 안 되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V.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의미

1.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지시적 의미

“지시의미는 어휘단위와 지시물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둔다...의미는 화자가 어떤 한 어휘단위의 지시적 잠재력을 이것과 동일 의미영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다른 단위의 지시적 잠재력과 구별하게 해주는 필요충분한 개념자질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⁴⁾ 지시의미는 외연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외연적 의미란,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언어 전달의 중심된 요소를 이루는 의미를 가리킨다. 개념적 의미 또는 인지적 의미라고도 한다.”¹⁵⁾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돌이’, ‘-순이’의 지시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출신, 직업, 계층을 나타내는 비속어.

(가) 제1유형

a-1. 고(高)순이, 야(夜)돌이, 야(夜)순이

a-2. 복(復)돌이, 삼(三)돌이, 삼(三)순이, 재(再)돌이

b-1. 공(工)돌이, 공(工)순이, 차(車)순이

b-2. 방(防)돌이, 작(酌)순이

b-3. 농(農)돌이, 식(食)순이, 차(車)돌이, 판(盤)돌이

14) Eugene A. Nida,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의미분석론-성분분석의 이론과 실제』(조항범 옮김)(탑출판사, 1990), 27 ~ 28쪽.

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문법』(교육부, 1996).

- c. 담(擔)돌이, 담(擔)순이
- d. 징(懲)돌이
- (나) 제2유형
 - a. 딱돌이
 - b. 밥순이
 - c. 빠순이
- (다) 제3유형
 - 빠(bar)돌이, 빠(bar)순이, 홀(hall)순이

(가) 유형의 선행 요소는 한자어가 줄어서 된 경우다. 예를 들면 (가a-1)의 高는 고등학교, 夜는 야간학교가 줄어서 된 것이고, (가a-2)의 선행요소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동사 어근 복학, 삼수, 재수에서 첫음절을 딴 것이다. 한자는 表意文字로서 글자마다 독립성이 있고 하나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약어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이들 선행요소는 한 글자뿐이지만 그 뜻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가a) 유형은 ‘학생 출신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가a-1)의 선행요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돌이’, ‘-순이’와 결합하여 ‘X에 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가a-2)의 선행요소는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돌이’, ‘-순이’와 결합하여 ‘X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가b) 유형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갖는다. (가b-1)의 선행요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돌이’, ‘-순이’와 결합하여 ‘X에 다니는 사람’, ‘X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가b-2)의 선행요소는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돌이’, ‘-순이’와 결합하여 ‘X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강신항에 따르면 공돌이는 남자工員 혹은 공부 잘 하는 남학생이라는 의미로, 공순이는 공장에 다니는 여자 혹은 공부 잘 하는 여학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⁶⁾ (가b-3)의 선행요소는 행위의 대상물이 된다. 농돌이는 농사를 짓는 남자, 식순이는 음식을 만드는 여자 즉 식모, 차돌이는 차를 모는 남자 다시 말하면 운전기사로, 판돌이는 다방이나 노래방에서 레코드판을 돌리는 남자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에는 차돌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巴哥가, 차순이와 같은 뜻으로 巴姐, 巴嫂

16) 姜信沆, 앞의 책.

가 쓰인다. 차순이에 대응되는 단어가 2개인 것은 중국어 신어 가운데 여성 직업성 지칭어는 결혼 여부에 따라 변하는데 지칭 대상이 미혼일 때는 姐로, 기혼일 때는 嫂로 그 의미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巴는 영어 bus를 중국어로 음譯한 巴士에서 첫 음절을 딴 것이다.

(가c) 유형의 선행요소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한자어 동사 어간 擔任이 줄어든 것이다. 이때 ‘-돌이’, ‘-순이’는 담임하는 행위의 수행자이다. 담돌이, 담순이는 교사의 하위 분류인 남자 담임선생님과 여자 담임선생님을 익살스럽게 가리키는 말이다.

(가d) 유형은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가d)의 선행요소는 懲役이 줄어든 것으로서 징돌이는 징역살이를 사는 사람 즉 수형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나)는 선행요소가 고유어인 경우이다. (나a)는 ‘구두를 닦다’에서 동작동사 어간 닦이 된소리화하여 땀이 되고 거기에 ‘-돌이’가 붙어 된 것이다. 이때 ‘-돌이’는 닦는 행위의 수행자로서 땀돌이는 구두 닦는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나b)의 밥은 ‘밥을 짓다’에서 짓는 행위의 대상물이 된다. 그리하여 밥순이는 밥을 짓는 여자 즉 식모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나c)의 빠는 (다)의 빠순이와는 달리 고유어 오빠의 약어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빠순이는 오빠부대의 별칭으로서 10대, 20대 초반의 대중스타 여성 팬들을 속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c)의 빠순이는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는 선행요소가 영어인 경우이다. 빠돌이, 빠순이의 빠는 서양식 목로 술집 바(bar)가 된소리화한 것이다. 이 선행요소들은 모두 일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빠돌이, 빠순이는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와 여자를, 홀순이는 술집 홀에서 손님 시중을 드는 접대부를 속되게 지칭하는 말이다. 중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빠돌이에 맞먹는 것으로는 吧哥, 吧弟가, 빠순이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吧姐, 吧妹가 있다. 선행요소 빠와 吧의 음이 비슷한 것은 다 영어의 바를 음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5) 행위, 외모 등을 나타내는 비속어.

(가) 제1유형

a. 야(野)돌이, 야(野)순이, 순(順)돌이

b. 식(食)돌이, 식(食)순이

c. 삼(三)돌이, 삼(三)순이

(나) 제2유형

a. 간돌이, 간순이, 답순이, 뚝순이, 똥순이, 멍순이

b. 뺨돌이, 뺨순이

c. 짠돌이, 짠순이, 날쌌돌이

d. 깡순이, 끝순이, 잠순이

e. 땡순이, 땡순이, 빼순이, 빼돌이, 콩돌이, 콩순이

f. 또순이, 죽돌이, 죽순이

g. 따돌이, 따순이

h. 호순이, 닭돌이, 닭순이

I. 날순이

(다) 제3유형

팅(ting)돌이, Ting(ting)순이

(5가)는 선행요소가 한자어인 경우이다. (5가a)의 선행요소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한자어 형용사 어근 野, 順이다. 이때 ‘-돌이’, ‘-순이’는 그 형용사 의미의 성질을 띤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였을 때 그 문장(sentence)의 주어가 된다. 즉, ‘야돌이가 야하다’에서 야하다라는 서술어의 속성을 지닌 주체야돌이가 된다.

(5가b)의 선행요소는 행위의 대상물이 된다. 즉 식돌이, 식순이는 직업을 나타내는 (4가b-3)과는 달리 밥 많이 먹는 남자, 밥 많이 먹는 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5가c)의 선행요소는 한자어 수사 삼이다. 의미상 연관을 짓기 어려운 듯 하나 바보스러운 역을 많이 하던 코미디언 배삼룡씨의 이름 삼룡에서 삼의 한 자를 따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그리하여 삼돌이, 삼순이는 조금 모자라는 남자, 조금 모자라는 여자로 해석된다.

(5나)는 선행요소가 고유어인 경우이다. (5나a)의 선행요소는 ‘-하다’가 붙을 수

17) 논문 집필 준비 과정에 강남대학교 김동연 교수가 필자의 질문에 상세히 답해 주었는데 삼돌이, 삼순이의 뜻풀이도 김동연 교수의 의견을 참조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있는 고유어 형용사 어근 **간간**, **답답**, **똑똑**, **똥똥**, **멍청**의 축약형이다. 이때 ‘-돌이’, ‘-순이’는 그 형용사 의미의 성질을 띤 주체가 되어 ‘X의 성질을 지닌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그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였을 때 그 문장의 주어가 된다. 즉, ‘**간돌이가 간간하다**’에서 **간돌이**는 **간간하다**라는 서술어의 속성을 지닌 주체가 되고, ‘**답순이가 답답하다**’에서 **답순이**는 **답답하다**라는 성질을 띤 주체가 된다.

(5나b)의 선행요소는 ‘-스럽다’가 붙을 수 있는 고유어 형용사 어근 **뻘뻘**의 축약형이다. 이때 ‘-돌이’, ‘-순이’도 a와 마찬가지로 그 형용사 의미의 성질을 띤 주체가 된다. 즉, ‘**뻘돌이가 뻘뻘스럽다**’에서 **뻘돌이**는 **뻘뻘스럽다**라는 서술어의 속성을 지닌 주체가 된다.

(5나c)의 선행요소는 ‘-다’가 붙을 수 있는 고유어 형용사 어근 ‘**짜-**’와 ‘**날쌔-**’의 관형형이다. 이때 ‘-돌이’, ‘-순이’도 a와 마찬가지로 그 형용사 의미의 성질을 띤 주체가 된다. 즉, ‘**짤돌이가 짜다**’에서 **짤돌이**는 **짜다**(인색하다)라는 서술어의 속성을 지닌 주체가 되고, ‘**날쌔돌이가 날쌔다**’에서 **날쌔돌이**는 **날쌔다**라는 성질의 소유자로 된다.

짤돌이는 인색한 남자라는 의미 외에 학점이 **짤** 교수라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것도 역시 학점에 인색하다는 의미이므로 전체적으로 인색하다는 큰 테두리의 의미를 갖는다.

(5나d) 예의 각각은 선행요소가 명사 **깡다구**의 첫음절 **깡**과 단음절 명사 **끝**, 그리고 **잠**으로 되었다. **깡순이**는 악착같은 기질이나 힘을 가진 여자의 뜻이고, **끝순이**는 강의시간마다 지각하는 여학생, **잠순이**는 잠이 많은 여학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5나e) 예들의 선행요소는 동사 **땡땡이치다**, **뺨까다**, **빠지다**, **콩까다**의 첫음절들로 된 것이다. 이때 ‘-돌이’, ‘-순이’는 상술한 동사들이 나타내는 행위의 수행자이다. 즉 **땡순이**, **뺨순이**, **빠순이**, **빠돌이**, **콩돌이**, **콩순이** 등은 각각 강의시간마다 잘 빠지는 여학생, 거짓말을 잘 하는 여자, 잘 빠지는 남자와 여자, 바람을 잘 피우는 남자와 여자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5나f)의 선행요소는 ‘-돌이’, ‘-순이’가 수행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뜻을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해 주는 단음절 부사로 되어있다. **또순이**는 **철전팔기**의 **오펝** 이처럼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여자라는 의미로부터 **과생된 생활**에 악착같은

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죽돌이와 죽순이는 각각 한곳에만 죽 있는 남자, 한곳에만 죽 있는 여자의 뜻이 된다.

(5나g)의 선행요소는 따돌림이 줄어든 것으로서 당하다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따돌이, 따순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남자 아이와 따돌림을 당하는 여자 아이의 의미로 해석된다.

(5나h)의 선행요소는 식물인 호박의 첫 음절 호와 동물인 닭으로 되어 있는데 형태상의 유사성에 의해 호순이는 호박처럼 못 생긴 여자로, 닭돌이, 닭순이는 닭처럼 잘 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나i)의 선행요소는 ‘지독한, 악랄한’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로서 날순이는 불량 여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5다)의 선행요소는 만남, 모임의 뜻인 영어 단어 미팅(meeting)에서 텅을 절단(clip)한 것이다. 텅돌이, 텅순이는 미팅을 많이 하는 남자와 여자로 해석된다.

2.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정감적 의미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는 지시 의미 외에 정감적 의미도 나타낸다. “표현이 지니는 정감적 의미는 의미단위와 통보행위(communicative act)에 참여한 사람이 나타내는 정감적 반응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다.”¹⁸⁾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는 대부분 지칭대상에 대한 멸시, 비하, 모욕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많다. 그것은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지칭대상이 주로 사회적 신분이 낮은 하류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재산, 학력, 직업 정도가 우리나라의 사회 계급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될 것임은 틀림없을 듯하다.”¹⁹⁾ 구두담이, 식모, 술집 접대부 등은 사회 최하층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딱돌이, 식순이, 작순이, 빠(bar)순이 등이 긍정적 의미를 띠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속어는 대화의 장면에 따라서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장사꾼 아줌마와 반나절이나 흥정했지만 한푼도 깎아주지 않을 때,

18) Eugene A. Nida, 앞의 책.

19) 李翊變, 『사회언어학』(민음사, 1994). 90쪽.

“이 아줌마가 짠순이네!”라고 했다면, 화자의 불쾌한 기분을 표현한 말로서 발화 대상을 멸시, 비하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 다 쓰고 난 립스틱 통도 버리지 않고 도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유명한 짠순이랍니다”라고 하면 알뜰 주부와 통하는 긍정적 의미이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순이가 연속방송극으로 전과를 타면서부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²⁰⁾

“무슨 놈의 여자가 고 따위로 생겨먹을 수 있어. 여자가 고 모양이라면 징그러워서도 못 데리고 살겠더라.” “허허, 어디 사내만 믿고 살 세상이라던가? 그렇게 억척으로 살지 않으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전자는 또순이를 비하하는 부정적 의미이고, 후자는 생활에 악착같은 여자를 찬양하는 긍정적 의미이다. 날쌔돌이는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선수 서정원씨의 별명이다. “역시 날쌔돌이 서정원(수원 삼성)의 발은 빠르고 예리했다”²¹⁾에서 날쌔돌이는 범처럼 날쌔고 용맹한 축구선수에 대한 극찬과 존경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연히 긍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또 말을 더 재미있게 하거나,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을 때에도 쓰인다. 가령 (4가a-2)형인 복돌이, (4가c)형인 담순이, 담돌이 같은 예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성별과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

(4)와 (5)의 예들을 비교해 보면 성별 비대칭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즉 출신, 직업, 계층을 나타내는 비속어에는 ‘-돌이’ 계열 단어가 13개, ‘-순이’ 계열은 12개로서 남자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여자를 지칭하는 비속어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성질, 행위, 외모 등을 나타내는 비속어에는 ‘-돌이’ 계열은 12개뿐이고 ‘-순이’ 계열은 24개나 되어 후자가 전자의 2배나 된다. 이것은 남자에게는 관용적이고 여자의 품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함을 요구하던 남성우위, 남존여비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20) 朴甲千, 『語源隨筆-말의 故鄉을 찾아』(乙酉文化社, 1982.), 59~62쪽 참조.

21) <http://news.daum.net/daily/sports/soccer/200202/19/joins/v2355905.html>.

이런 경향에 대하여 민현식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성 외모 묘사어는 긍정 외모 묘사어가 발달했으나 부정 외모 묘사어는 적으며, 반대로 성품 묘사어나 행동 묘사어에는 부정적 묘사어가 다양하고 압도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하적 편견이 심했음을 언어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²²⁾ 이것은 여성 외모 묘사어, 여성 성품 묘사어, 여성 행동 묘사어에 대하여 말한 것이지만 여성 품행성 지칭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또 직업을 나타내는 비속어에 딱돌이는 있지만 딱순이는 없고, 식순이는 있지만 식돌이는 없다. 이것은 구두담이 같은 일은 주로 남자들만 하고, 식모 같은 일은 여자들만 하는 사회적 현실이 비속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 板爺(인력거를 모는 남자)는 있지만 板婆(인력거를 모는 여자)는 없으며, 月嫂(생계를 위하여 남의 산후조리를 거들어 주는 여자)²³⁾는 있어도 月哥(생계를 위하여 남의 산후조리를 거들어 주는 남자)는 없다.

민현식은 발화대상이 속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남녀 성별 대상어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²⁴⁾

- (6) (가) 절대여성어: 여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미인, 홍일점, 정숙하다, 아리뭇하다, 시집가다
- (나) 상대여성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서 더 쓰이는 어휘-화장(품), 얌전하다, 알뜰하다, 차분하다
- (다) 通性어: 남녀 두루 비슷하게 쓰이는 어휘-佳人, 분장, 침착하다, 괄괄하다, 결혼하다
- (라) 상대남성어: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서 더 쓰이는 어휘-나그네, 늙름하다, 씩씩하다, 우락부락하다
- (마) 절대남성어: 남성에 대해서만 쓰이는 어휘-미남, 신사답다, 짐잡다, 장가가다

22) 민현식, 「국어의 性別語(genderlect) 연구사」, 『사회언어학』, 제4권 2호(1996), 17쪽.
 23)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출산 후 한달 동안 몸조리를 하기 때문에 입말에서 坐月子는 산후조리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月子中心(산후 조리 센터)이 생기면서 도움을 청하는 산모들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아줌마(月嫂)를 주선해 주고 있다.
 24) 민현식, 앞의 논문, 15~16쪽.

또 여성 대상어를 지칭어, 관련어, 묘사어로 나누고, 여성 지칭어는 다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 (7) (가) 일반 지칭어: 여자, 아내, 아가씨, 홍일점, 고명딸, 고모
 (나) 직업성 지칭어: 가정부, 과출부, 미용사, 해녀, 여직원, 오피스걸
 (다) 품행성 지칭어: 여장부, 요조숙녀, 情婦, 불여우, 말괄량이, 자유부인
 (라) 외모성 지칭어: 미인, 미녀, 천하일색, 추녀, 박색, 호박, 무쪽
 (마) 성명 지칭어: 황진이, 김씨댁, 金室이, 과천댁, 점순이

민현식의 용어를 빌어 출신 비속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8) (가) 남성 직업성 지칭어: 공(工)돌이, 농(農)돌이, 담(擔)돌이, 딱돌이, 방(防)돌이, 빠(bar)돌이, 차(車)돌이, 판(盤)돌이
 (나) 여성 직업성 지칭어: 공(工)순이, 담(擔)순이, 밥순이, 빠(bar)순이, 식(食)순이, 작(酌)순이, 차(車)순이, 홀(hall)순이
 (다) 남성 품행성 지칭어: 칸돌이, 날쌔돌이, 닭돌이, 따돌이, 뺨돌이, 빠돌이, 식(食)돌이, 야(野)돌이, 죽돌이, 짠돌이, 콩돌이, 텅(ting)돌이
 (라) 여성 품행성 지칭어: 간순이, 깡순이, 끝순이, 날순이, 닭순이, 닭순이, 따순이, 뺨순이, 또순이, 똑순이, 멍순이, 뺨순이, 뺨순이, 빠순이, 야(野)순이, 식(食)순이, 잠순이, 죽순이, 짠순이, 콩순이, 텅(ting)순이
 (마) 남성 외모성 지칭어 : 없음
 (바) 여성 외모성 지칭어: 똥순이, 호순이

위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외모성 지칭어는 공백항이다. 비속어뿐만 아니라 일상어에서도 남성 외모성 지칭어는 미남 등 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 여성 외모성 지칭어는 미인, 미녀, 천하일색, 추녀, 박색, 호박, 무쪽 등 아주 다양하다. 이것도 남성 정보다는 여성이 외모나 성품이나를 막론하고 남의 입에 많이 올라야 했던 사회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어의 신어 가운데 단음절 친족어가 접미사처럼 쓰이어 형성된 남성 직업성 지칭어와 여성 직업성 지칭어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9) (가) 남성 직업성 지칭어

- a. 爺 : 班爺(학원을 운영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 板爺(인력거를 모는 남자), 倒爺(투기꾼), 的爺(택시운전기사)
- b. 哥 : 巴哥(버스 운전기사), 吧哥(서양식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남자), 報哥(신문 배달부), 的哥(택시 운전기사)
- c. 弟 : 吧弟(서양식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남자.)

(나) 여성 직업성 지칭어

- a. 嫂²⁵⁾ : 報嫂(아줌마 신문 배달부), 乘嫂(아줌마 버스 차장), 的嫂(아줌마 택시운전기사), 地嫂(지하철 회사의 아줌마 직공), 房嫂(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아줌마), 警嫂(①경찰관의 부인, ②아줌마 경찰관), 軍嫂(군인의 부인), 空嫂(항공기의 아줌마 승무원), 月嫂(生計를 위하여 남의 산후조리를 거들어 주는 여자)
- b. 姐 : 吧姐(서양식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자.), 倒姐(여자 투기꾼), 空姐(항공기의 처녀 승무원)
- c. 妹 : 吧妹(서양식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자)

VI.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은 신기한 표현에 대한 추구, 동질성(친밀성) 확보, 감정표현의 욕구, 경제성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신기한 표현에 대한 추구

젊은이들은 대화를 할 때 신기한 표현으로 여러 사람을 웃기거나 놀라게 또는 즐겁게 하는 것을 재미로 여긴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풍자와 해학은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신기한 표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5) '嫂'字 系列의 직업성 지칭어가 특별히 많은 이유는 1990년대, 조기퇴직한 기혼 여성들이 재취직의 출로를 여러 가지로 찾던 중,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직종을 많이 개발하였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반영하는 신어들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동질성(친밀성)의 확보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는 비격식적인 대화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친숙한 사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격식적인 대화는 사무적이고 딱딱하기에 친한 사이에서는 기피한다. 화자가 비속어를 쓸 때 그 상대방이 정중하고 점잖은 어휘를 쓴다면 분위기는 어색하게 될 것이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를 따라 자연히 비속어를 쓰게 된다. 우선 동질성이 있어야 친밀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3) 감정표현의 욕구

“비속어 생성의 일차적 원인이 일상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욕구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리고, 비속어는 욕구 불만 같은 것을 발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생활의 촉진제 구실을 하기도 한다. 화가 났을 때 욕설 같은 비속어를 쓰는 것은 순간적으로 감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²⁶⁾

본고에서 다룬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는 모두 63개인데 그 선행요소를 어종별로 나누어 보면 고유어가 32개, 한자어가 26개, 영어가 5개로 고유어가 제일 많다. 이것은 한자어는 정중하고 격식적인 문어에 많이 쓰이고, 고유어는 통속적이고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쓰이므로 화자의 감정을 숨김없이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된소리로 시작되는 단어가 21개로서 총수의 1/3을 차지한다. 평음은 유순하고 온순하며 부드럽고 평범한 것과 연상되며, 된소리는 평음에 비하여 단단하고 굳고, 센 것 등과 연상된다.²⁷⁾ 따라서 된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는 감정표현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4) 경제성

3음절인 땡순이로 강의시간마다 잘 빠지는 여학생이라는 13음절로 된 구를 어휘화하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최소최대의 원리”에

26) 金東彦, 앞의 책, 10~11쪽.

27)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강좌, 『어음 및 문자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34쪽 참조. 원문에는 ‘순한 소리’이지만 한국식으로 ‘평음’이라고 고쳤다.

도 부합된다.28)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는 대부분 평순이처럼 길게 풀이해야 할 말을 3음절 단어로 줄인 것이다.

VII. 맺음말

본고에서 人名用字 ‘-돌이’, ‘-순이’가 접미사처럼 쓰여 형성된 비속어의 개념과 특성, 造語, 의미 및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와 성별과의 관계,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人名用字 ‘-돌이’, ‘-순이’가 임시 접미사처럼 쓰여 형성된 접미 과생명사다. ‘-돌이’, ‘-순이’는 성별의 구별적 표식이 되며 조어능력이 다른 전용 접미사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다.

② 출신, 직업, 성분, 성질, 행위, 외모 등이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명명하는 지시 의미 외에 정감적 의미도 나타내는데 그것은 장면에 따라 가변성을 띤다.

③ 직업을 나타내는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에서 성별 비대칭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일 성별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관계된다. 성질, 행위, 외모를 나타내는 ‘-돌이’, ‘-순이’ 계열의 비속어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은 婦德을 유별나게 강요당하던 한국 여성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돌이’, ‘-순이’ 계열 비속어의 사용 목적은 신기한 표현에 대한 추구, 동질성(친밀성) 확보, 감정표현의 욕구, 경제성 등 네 가지에 있다.

참고문헌

姜信沆, 『현대 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서울: 태학사, 1991.

金東彦, 『국어비속어사전』, 서울: 프리미엄박스, 1999.

28) 金鑑柄, 『국어합성어연구』(역락출판사, 2000).

金迎喜, 「韓中 친족 어휘 비교 연구: ‘媿’자 관련 친족 어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4호, 2000.

金鎰炳, 『국어합성어연구』, 서울: 역락출판사, 2000.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강좌, 『어음 및 문자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김택구, 「대학생 사회의 은어(隱語) 고찰」, 『인문과학연구』 5집 2호, 1998.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민현식, 「국어의 性別語(genderlect) 연구사」, 『사회언어학』 제4권 2호, 1996.

朴甲千, 『語源隨筆-말의 故鄉을 찾아』, 서울: 乙酉文化社, 1982.

李爽周, 「명사화 접미 형태소의 기능」, 『국어의미론』, 서울: 개문사, 1990.

李翊燮,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1994.

李翊燮李相億蔡琬,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1997.

陳松岑, 『禮貌語言』, 臺北: 商務印書館, 2001.

桂詩春, 『新編心理語言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0.

馬宏基常慶豐, 『稱謂語』, 北京: 新華出版社, 1998.

沈孟璽, 「再談漢語新的詞綴化傾向」, 『詞彙學新研究-首屆全國現代漢語詞彙學討論會選集』, 北京: 語文出版社, 1995.

于根元, 『現代漢語新詞辭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4.

張敏, 『認知語言學與漢語名詞短語』,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http://www.Chinanews.com.cn>

Eugene A. Nida, *Compotential Aanalysis of Meaning*, Hague Mouton, 1975. 조항범 옮김, 『의미분석론-성분분석의 이론과 실제』, 탑출판사, 1990.

주요어

‘-돌이’, ‘-순이’, 비속어, 임시 접미사, 지시의미, 정감적 의미